

전북관광지원센터, 가시적 성과 ‘풍성’

관광스타트업 발굴·지역 관광산업 개선·관광 인재육성·해외 진출 지원 등 ‘전북자치도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참여 기업 모집…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북자치도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관광스타트업 발굴, 지역 관광산업 개선, 관광 인재육성, 해외 진출 지원 등 다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센터는 총 94억원(국비·도비 각 47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올해도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을 이어간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육성뿐 아니라 콘텐츠 개발, 글로벌 판로 개척, 전문 인력 양성 등 관광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통해 도내 관광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관광스타트업 발굴 분야에서는 지난해 총 18개사를 지원했으며, 이들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유치 연계를 통해 사업화 기반을 다졌다. 또한 Scale-up 프로젝트를 통해 5개사가 지속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했고, 2024년 8월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기업 28개사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현재까지 센터 입주기업은 총 23개사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판로개척 성과도 주목된다.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베트남 현지기업 및 기관과 총 3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투자협약은 2건, 관광상품개발 계약은 1건을 성사시켰다. 특히 베트남 조림사업부와

의 협업을 통해 달랏지역 허브산림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계약을 체결한 (주)아삭은 280억 VND(한화 약 16억원)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 지역기반 관광활성화 분야에서도 전통 관광기업 5개사의 사업 도약을 지원했으며, 이들 기업은 디지털 전환(누리집, 예약 시스템 등)과 맞춤형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 로컬특화 여행상품 공모전에서는 5개사를 선정해 사업화를 추진했고, 관광굿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콘텐츠 개발을 유도했다. 관광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두드러졌다. 센터를 통해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총 173명(정규직 130명, 비정규직 43명)에 달하며,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는 14개 기업과 21명의 인턴을 연계했다. 관광지식살롱 시즌2는 총 9회에 걸쳐 운영돼 452명이 참여했고, 참가자 만족도는 평균 4.8점을 기록했다. 지역센터의 운영 내실화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성과를 보였다.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전주완산여고, 한국관광공사, 고창문화관광재단, 우석대학교 등과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청년 관광인재 양성과 관광 전문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센터 내 시설은 연간 895건 대관료 총 8,276명이 이용하며 지역의 창업 및 관광 네트워크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에도 관광스타트업 공모, 관광콘텐츠 공모전, 글로벌 연계 협업 프로젝트,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만의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 및 판로 확대를 통해 도내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tourbiz.jbct.or.kr/)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구제역 확산 방지

긴급 백신 접종·방역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전남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북자치도는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에 돌입하고, 가축시장 운영 중단 기간도 연장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남 영암에서는 지난 13일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총 13건(영암 12건, 무안 1건)이 확인됐다. 이에 전북도는 즉각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도내 1만 농가가 사육 중인 소·염소 54만 5천여 마리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다. 당초 도는 144명으로 구성된 72개 접종반을 투입해 3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일제 지역의 확산세가 이어지자 30명 규모의 접종 인력을 추가로 편성에 접종 완료 시점을 오는 3월 28일로 앞당겼다. 현재까지 접종률은 약 68%에 달한다. 백신 접종과 더불어 방역 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도는 지난주부터 잠정 중단한 가축시장 운영을 기존 계획보다 일주일 연장해, 백신 접종 완료 시점인 3월 30일까지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구제역 발생 직후 위기 단계를 ‘주의’로 상향하고, 전남 지역을 오가는 사료 차량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 강화 등 선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산림환경연구원, 봄철 해빙기 맞아 입도시설 점검

전북 산림환경연구원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도내 입도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13개 시군(전주시 제외) 민가 인근의 입도시설 324개소(총연장 1,734km) 중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인도 노면 침하 여부 △절·성토사면 붕괴 위험 △배수시설 및 측구 상태 △기타 구조물 피해 여부 등이다. 특히 절근이 어려운 절·성토사면 구간은 드론을 활용한 정밀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속히 안전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열린 3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도정운영 추진상황 공유… 도, 3월 소통의 날

김 지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자” 당부
이석래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미래를 바꾸는 과학기술’ 특강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열린 3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정상 시상과 김 지사의 소통 시간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이석래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의 초청 특강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2036 하계 올림

픽 국내 후보 도시라는 기적을 이뤄냈다”며 “지나간 과정을 함께해 준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어, “인도, 이집트 등 세계 10여 개국이 향후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할텐데, 우리 감성과 특색을 살리고 연대 도시와 머리를 맞댄다면 전북이 올림픽을 가져올 거라고 자신한다”며, “도정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이석래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이 “미래를 바꾸는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의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5년 1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 최우수상은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과 동물방역과, 우수상은 법무행정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각각 수여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뱃길 조성, 현장에서 답 찾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경인 아라뱃길 현장 시찰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21일 서해의 한강을 잇는 국내 최초의 내륙형 뱃길인 경인 아라뱃길 현장을 시찰했다. 경인 아라뱃길은 수상 교통수단과 물류 기능을 넘어 아라미린 페스티벌, 마라톤대회, 카약축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시찰은 내륙형 뱃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직접



새만금 뱃길 조성 방향과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답을 찾고

자 마련했다. 김경안 청장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아라미루 등 아라뱃길 수향 8경과 아라자전거길 등 주요 관광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아라뱃길 조성 사업 현황과 새만금 뱃길 조성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에도 만경강, 동진강 주변에 숨은 보석 같은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다”라면서, “새만금 뱃길 조성을 통해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 그리고 익산까지 하나로 잇는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가치 있는 공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암 예방 정책 성과 ‘빛났다’

김정희 출산지원팀장, ‘암 예방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체계적인 암 예방·관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김정희 전북자치도 출산지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전북자치도가 암 조기검진 독려, 의료 지원 확대, 암 생존자 통합 지원 등 실질적인 암 예방 정책을 추진해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또한, 전주시 김가연 주무관과 익산시 최지혜 주무관, 대자인병원 최병관 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남원시는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도내 각 기관이 함께 이룬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북자치도는 국가 6대 암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암센터·안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암 예방·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2024년 도내 암 검진



수검률을 42.88%까지 끌어올려 전국 평균(42.03%)을 상회하며, 광역

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검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노력은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2023년 전북의 암 사망률 또한 광역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제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주간(3월 17일~21일)을 운영하며 도민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암 예방 1대 수칙 홍보(금연, 절주, 균형 잡힌 식생활, 정기검진 등 실천 강조) △도·시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도민 참여형 암 예방 거리 캠페인 등이 시군별 특색에 맞춰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도, 기업지원 ‘최우수’ 시군 선정

전주시·고창군 등 2곳
정읍시 등 4곳은 ‘우수’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전주시와 고창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했으며, 인구 규모(7만 명 이상·미만)에 따라 시군을 나눠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평가 항목은 기업지원 노력, 규제 혁신, 투자 유치 성과 등이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가 반영됐다. 인구 7만명 이상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전주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지원을 강화해 기존 공장등록이 어려웠던 섬유업종 기업 144개소의 추가 입주를 유도,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지구’(강원 후평, 경남 사천, 전북 전주)로 선정되며, 1,09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산업구조 개선을 이끌었다. 인구 7만명 미만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창군은 ‘1기업 1공무원 전담

제’를 운영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결률 91%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기업 증축 신고 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그림자 규제’ 16건을 발굴해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섰으며, 신활력산업단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사업을 통해 410억원의 국가예산 확보를 이룬 성과를 거뒀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4곳도 기업환경개선 및 투자유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시는 산업단지 약취 문제 해결을 위해 12개 기업에 약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했으며 김제시는 9개 기업과 4,03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무주군은 안성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사업 추진으로 국비 12억 원 확보, 신속처리단 운영을 통해 공장등록 변경 승인 절차를 단축해 조달청 입찰 15억원 성사 등의 성과를 냈다. 진안군은 창업기업 제품구매 실적 81억원을 기록하며, 지역 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이만호 기자

도, 봄철 산불 예방 특별대책 추진

내달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산불 감시원 배치·불법 소각·무단 입산 단속 등

전북자치도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2일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책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산불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감시원을 배치해 불법 소각과 무단 입산을 집중 단속하며, 주말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예방 계도를 병행한다. 또한, 일몰 전후와 강우 예보 전 소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감시 인력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야간 산불 발생에 대비해 신속 대응조를 각 시·군에 배치해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진화 헬기와 지상 인력을 총동원한다. 특히 ‘골든타입제’를 철저히 이행해, 산불 발생 즉시 입차 헬기

와 산림청 헬기가 협력해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도는 3월 13일 도청에서 도내 14개 시군, 산림청, 소방본부, 군 항공대, 경찰청 등 48개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전북 산불방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산불 발생 시 인접 시군 간 진화 인력과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발두렁이나 쓰레기를 절대 태우지 말 것과 산에 갈 때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